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CHINA

중국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8~10/04

1. 미국발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유예 연장 촉구

2. 중국-유럽 철도 물류 인프라 확장 및 노선 다변화

3. 태평양 임시 서비스 철수와 운임 인상에 따른 공급망 비용 변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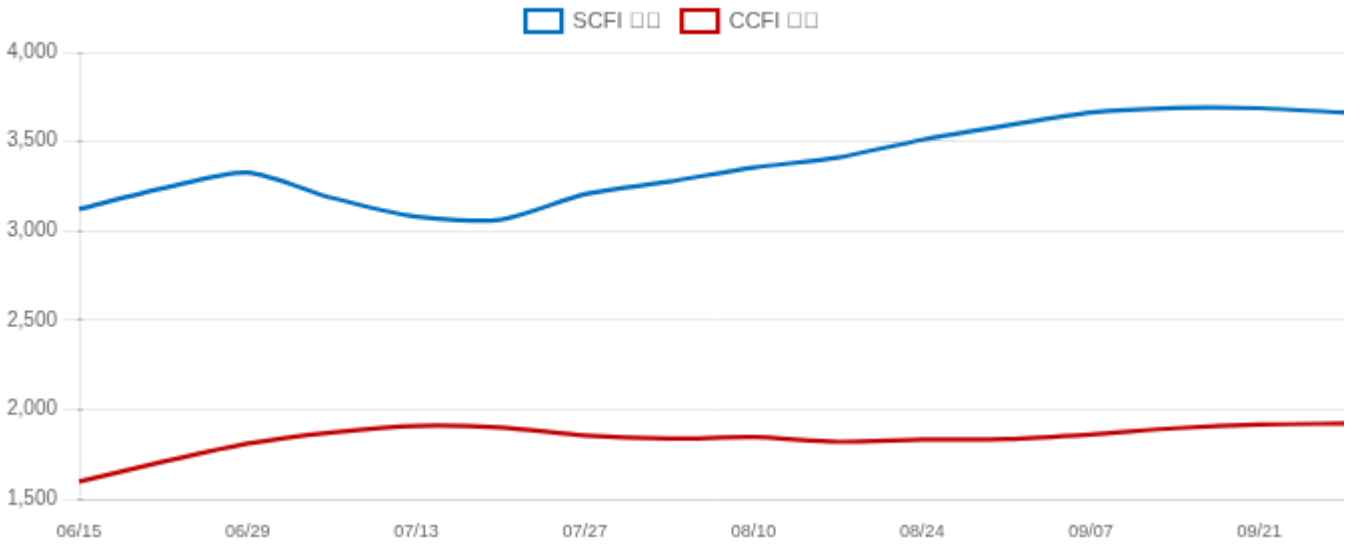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국 권역 물류·공급망은 미국의 대중국 선박 규제 불확실성과 중국-유럽 육로 운송의 구조적 성장이 교차하는 흐름을 보임. 미국 무역단체들은 중국 연계 선박 항만 수수료 부과 유예 연장을 촉구하며 운송비 급등과 공급망 혼란을 경고했고, 머스크의 태평양 임시 서비스 철수와 DHL익스프레스의 운임 인상이 글로벌 운임 변동성을 키움. 반면 중국-유럽 철도는 카자흐스탄 중심의 인프라 확충과 노선 다변화로 해상운송 대비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점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의 축이 해상에서 철도로 일부 이동하고, 규제와 운임 변동이 기업의 물류 전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상함을 시사함. 미국의 항만 수수료가 실제 발효될 경우 대중국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중국-유럽 철도나 대체 노선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태평양 노선 선복 감소에 따른 단기 운임 상승과 특송 운임 인상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동시에 높여 공급망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종합	3,662.3 pt	09/28	-0.7%	+2.0%
CCFI 종합	1,923.93 pt	09/28	+0.3%	+4.7%
KCCI 중국	54 $/FEU	09/28	-3.6%	-3.6%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CCFI · KCCI) · 기준 09/28

미국발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유예 연장 촉구

> **미국 무역단체들이 중국 연계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유예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함. 이는 수수료 적용 시 운송비 급등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건조 또는 중국 관련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순톤당 18달러에서 컨테이너당 120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음. 이 수수료는 중국 선사 기항당 최대 100만 달러, 중국산 선박은 선박 가치의 최대 1.5%에 달할 수 있음. 당초 2025년 10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11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임.

전미소매연합, 소매업계리더협회, 농업운송연합 등 미국 주요 무역단체와 화주협회가 9월 23일자 서한을 통해 유예 연장을 공식 요청함. 이들은 수수료 부과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화주들이 장비 확보 차질, 항만·내륙 네트워크 제약, 글로벌 무역 노선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힘.

수수료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운 분야 미국 역할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의 물류·해운·조선 부문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됨. 그러나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미국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음. 이에 무역단체들은 유예 연장이 운송비 상승에 직면한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자와 제조업체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며, 보복 조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DC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달됨. 시장에서는 수수료 부과 재개 여부가 향후 태평양 노선 운임과 선복 배치 전략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수수료가 부과되면 중국 선사들이 미국 기항을 축소하거나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파급효과가 예상됨.

- USTR은 중국 연계 선박에 대해 순톤당 18달러~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계획함.
- 수수료는 중국 선사 기항당 최대 100만 달러, 중국산 선박은 선박 가치 최대 1.5% 부과됨.
- 미국 무역단체들이 11월 9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장을 촉구함.
- 화주들은 장비 확보 차질, 항만 혼잡, 무역 노선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 수수료 부과 시 태평양 노선 운임 상승과 선복 재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전망

수수료 부과 여부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무역협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단기적으로는 유예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해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전망임. 이에 따라 글로벌 선사들은 미국 항만 서비스 조정과 대체 선복 확보를 검토해야 할 것임.

시사점

화주 — 수수료 부과 시 운송비가 급등할 수 있으므로 선사 계약 시 비용 전가 조항을 검토해야 함.

포워더 — 중국 선사 의존도가 높은 노선의 경우 대체 선사를 발굴하고 고객사에 비용 상승 가능성을 사전 고지해야 함.

항만·선사 — 미국 항만은 중국 선사 기항 감소에 대비해 화물 처리 능력을 재점검하고, 중국 선사는 미국 시장 전략을 조정해야 함.

참고자료: Supply Chain Dive, 중국 선박 수수료 유예 연장 촉구...미 무역단체, USTR에 서한 (검색일: 2026-10-04)

중국-유럽 철도 물류 인프라 확장 및 노선 다변화

> **중국-유럽 철도 물류는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장과 노선 다변화가 가속화되며 해상운송 대비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기로 물동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유럽 철도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 KTZ가 대규모 인프라 확장을 추진 중이다.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예상되며 현재 약 절반이 집행됐고, 올해에만 900km의 신규 노선이 건설되고 있다. 아야고즈-바흐티 구간이 완공되면 카자흐스탄-중국 간 세 번째 철도 국경 통과 지점이 마련되어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기존 55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선 다변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중국 장쑤성 국제철도화물익스프레스 운영사가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로(TITR) 협회와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롄윈강항을 거점으로 일본·한국 화물까지 유치해 중앙아시아·캅카스·튀르키예를 경유하는 유럽행 복합운송을 구상 중이다. KTZ도 TITR 노선의 컨테이너 열차를 올해 1분기 173편에서 연말 600편, 이듬해 약 1000편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이러한 확장은 중국 화주들의 육상 운송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전통 운송 회랑의 불안정성에 따른 화물 흐름 재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알틴콜 역은 올해 1~8월 화물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080만 톤을 기록했고, 중국발 수입은 6% 늘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앙아시아행이 12만 8018TEU로 가장 많았고 TITR 노선도 6만 4511TEU를 처리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영향으로는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철도 운송의 핵심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KTZ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응해 수백 대의 기관차와 카스피해 화물선 6척, 화물기 1대를 도입하고 중국·유럽 내 항만 물류시설도 확장할 방침이다. 다만 알틴콜 역에서 표준궤-광궤 환적이 필요한 구조적 병목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 카자흐스탄 KTZ, 2030년까지 철도 인프라에 100억 달러 투자, 현재 약 50% 집행
- 올해 900km 신규 철도 건설 중, 아야고즈-바흐티 구간 완공 시 중국과 세 번째 국경 통과 지점 확보
- 중국-카자흐스탄 구간 연간 화물 처리 능력 55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확대 전망
- 장쑤성 국제철도, TITR 협회와 협력해 롄윈강항 기반 다국적 화물 유치 추진
- 알틴콜 역 1~8월 화물 처리량 1080만 톤, 중국발 수입 전년 대비 6% 증가

전망

중국-유럽 철도 물동량은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확장과 TITR 노선 강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러시아 경유 노선의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화주 수요가 트랜스-카스피안 회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환적 효율성과 통관 절차 개선이 병행되어야 노선 다변화가 실질적인 물동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시사점

화주 —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운송 대비 운송기간 단축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한 공급망 재편 기회가 확대된다.

포워더 — 트랜스-카스피안 노선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중앙아시아·캅카스 경유 유럽행 화물 운송 상품 구성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항만·선사 — 롄윈강항 등 중국 주요 항만과 카스피해 해운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륙 철도와의 복합운송 네트워크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된다.

참고자료: CFTS, 카자흐 국영철도, 중국~유럽 철도 인프라 확장…연간 물동량 1억 톤 목표 · TITR Association, 장쑤 국제철도, 트랜스-카스피안 노선 협력 확대 논의 · rail-news.kz, 알틴콜 역 화물 처리량 1080만 톤…중국발 수입 6%↑ (검색일: 2026-10-04)

태평양 임시 서비스 철수와 운임 인상에 따른 공급망 비용 변화

> **머스크의 태평양 임시 서비스 철수와 DHL익스프레스의 운임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비용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선복 감소는 단기적으로 운임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반면, 특송 운임 인상은 전자상거래 등 항공 화물의 물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킴.**

2026년 성수기 대응을 위해 한시 운영된 머스크의 TPX 서비스가 10월 종료됨. 이 노선은 베트남 까이멥, 부산, 미국 롱비치를 기항하며 3,600~4,600TEU급 6척이 투입되어 총 15회 운항했음. 성수기 종료에 따라 임시 선복이 철수하면서 아시아발 미주 서안 노선의 공급이 축소됨.

머스크의 철수는 계절적 수요 감소에 대응해 선복을 조절함으로써 운임 하락을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그러나 성수기가 지났음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단기 선복 축소는 화주들에게 운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동시에 DHL익스프레스는 2027년 1월부터 홍콩·마카오 지역 운임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는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에너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비용 요인과 항공기 현대화, 보안·IT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조치임. 특히 전자상거래와 긴급 화물 의존도가 높은 홍콩·마카오발 특송 노선에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이러한 해상 운임의 불확실성과 항공 특송 운임의 직접적 인상은 글로벌 셀러와 제조업체의 공급망 비용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해상 운임은 단기 수급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반면, 특송 운임은 연례 계약을 통해 고정적으로 상승하면서 화주들에게 이중의 압박으로 작용함.

- 머스크 TPX 서비스, 총 15회 운항 후 2026년 10월 철수 예정. 마지막 항차는 4,504TEU급 머스크 보스턴호로 9월 29일 까이멥 출항.
- TPX는 49일 로테이션, 3,600~4,600TEU급 6척으로 운영됨. 철수로 부산~롱비치 간 선복이 감소함.
- DHL익스프레스, 홍콩·마카오 발 국제 특송 운임 평균 4.9% 인상 예정.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운임 인상 배경: 인플레이션, 에너지·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항공기 및 보안 인프라 투자 지속.
- 머스크의 임시 서비스 철수는 성수기 종료에 따른 전략적 선복 조정으로, 단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

전망

해상 운임은 성수기 종료 후 수요 둔화로 하락 압력을 받겠으나, 임시 서비스 철수와 정기 선복 관리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항공 특송 운임은 연례 인상 기조가 이어져 고정 비용화되는 추세임. 글로벌 공급망 관계자들은 운임 변동성에 대비한 장기 계약 확대와 운송 수단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화주 — 해상 운임 단기 변동성과 특송 운임 인상을 동시에 고려해 예산을 재산정하고, 계약 조건에 운임 변동 조항을 포함해야 함.

포워더 — 선사들의 선복 조정에 따라 안정적 선복 확보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상·항공 리드타임 변화를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함.

항만·선사 — 임시 서비스 종료 후 정기 노선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대 운영 전략이 필요함.

참고자료: Linerlytica, 머스크, 태평양 TPX 임시 서비스 10월 철수…성수기 운송 종료 · Asia Cargo News, DHL 익스프레스, 홍콩·마카오 운임 평균 4.9% 인상 (검색일: 2026-10-04)